

블록체인 기업 두나무, 정보보호대학원에 15억 원 기부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 기업 두나무가 본교 정보보호대학원에 올해부터 매년 3억 원씩 총 15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기부금은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 연구 지원에 활용된다.

지난 15일 본관에서 열린 기부약정식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사는 “고려대와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블록체인 생태계 강화와 디지털 자산 투자 환경 개선 및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진택 총장은 “본교 정보보호대학원의 정책연구를 적극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블록체인 기술 활용 연구를 지원하고 디지털 자산시장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배연수 기자 ysbae@

헌혈고연제, 19일부터 4주간 진행

대한적십자사와 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헌혈고연제를 1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진행한다. 헌혈고연제는 헌혈 부족 사태를 알리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행사 기간 동안 누적 헌혈횟수가 많은 학교에 치킨 360마리, 적은 학교에 240마리가 제공된다. 두 학교가 헌혈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축제를 벌인다는 의미에서 행사의 명칭을 고연전이 아닌 ‘고연제’로 정했다.

해당 기간 매주 수요일 학생회관 앞 천막부스와 헌혈버스를 통해 헌혈고연제에 참여할 수 있다. 수도권 내 헌혈의 집에서 학생증을 제시한 후 헌혈해도 헌혈량이 집계된다. 누적 헌혈량은 양교 학생회 SNS를 통해 공개되며, 학생회관 앞 헌혈온도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교 총학생회는 “고연제를 헌혈과 접목시켜 혈액부족사태를 공문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헌혈고연제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조남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은 “이번 행사가 보다 많은 청년이 헌혈에 관심을 가지고, 건전한 대학 헌혈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형준 기자 jun@

정연돈 교수팀,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발

본교 정연돈(정보대 컴퓨터학과) 교수 연구팀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최적의 성능을 찾아서 동작하는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개발했다.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다양한 환경적 변화에 최적의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스스로 설정을 조절하고 운영한다.

이번 개발의 목표는 움직이는 물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다. 움직이는 물체는 위치가 계속 변해 최적의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 연구팀은 새로운 형태의 기계 학습 모델을 비롯한 여러 기법을 제안했으며 새로운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들보다 우수함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는 지난 6일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데이터베이스 분야 세계적 권위의 학회인 VLDB(Very Large Data Bases) 2022에서 발표했다. 논문명은 ‘Waffle: In-memory Grid Index for Moving Objects with Reinforcement Learning-based Configuration Tuning System’이다.

김동우 기자 good@

고위험 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심포지엄 개최

본교 안암병원(원장=윤율식 교수)이 지난 3일 본교 의과대학 최덕경 강의실에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센터장=홍순철 교수)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이번 심포지엄은 온·오프라인으로 2개의 세션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선 주산기(임신 22주에서 생후 1주까지의 기간) 및 신생아 감염에 관해 주제별로 발표하고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선 산과학 최신 동향에 대한 총정리를 주제로 최신 지견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 홍순철 센터장은 “앞으로도 안암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동북부 지역의 거점센터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동우 기자 good@

본교 의료원, 배우 트로이 코처 홍보대사로 위촉

본교 안암병원(원장=윤율식 교수)에서 지난 8일 할리우드 배우 트로이 코처(Troy Kotsur) 홍보대사 위촉행사가 진행됐다. 코처는 3월 영화 <코다>를 통해 아카데미 남우조연상을 받은 청각 장애인 배우로 제19회 세계농아인대회 홍보대사로 임명돼 한국을 방문했다.

행사에는 트로이 코처 부부, 김영훈 의무부총장, 윤율식 안암병원장, 한국농아인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영훈 의무부총장은 “세계인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트로이 코처를 고려대의료원의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처는 앞으로 2년간 고려대의료원의 홍보대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김인엽 기자 dzlight@

# 타인 명의 이용 체육시설 예약 원천 봉쇄

지인 동원, 관행처럼 이뤄져

부원 모집·친선 경기차질 예상

동아리 간 자율협의체 제안도

▶1면에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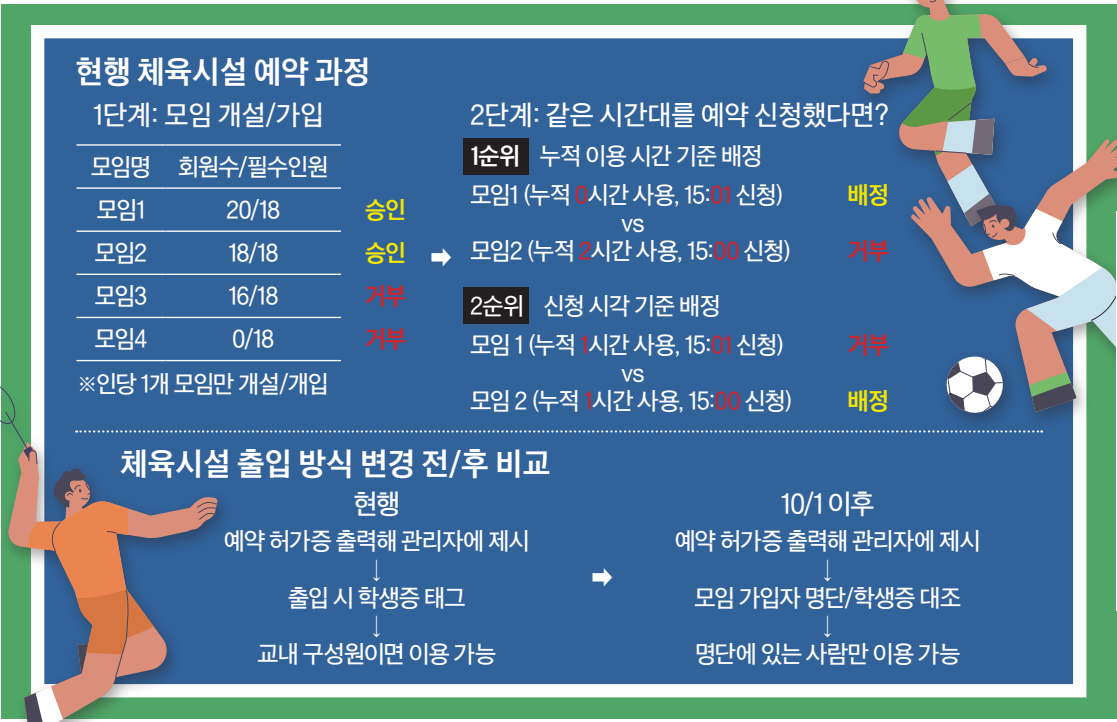
소규모 동아리는 시설 예약에 지인을 동원하지 않으면 모임 개설 자체가 불가능하다. 본지가 취재한 10개 동아리 모두 규모와 상관없이 시설 예약에 지인을 동원한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공과대학 농구동아리 ‘기우회’ 이은상 회장은 “인원이 부족한 소규모 동아리는 동아리원 자체만으로 모임을 개설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런 관행은 예약자와 실제 이용자가 달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가능했다. 교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모임에 가입할 수 있기에 동아리에 소속되지 않아도 체육시설 예약을 도울 수 있었다. KUBC에서 탈퇴 회원의 계정을 도용한 것은 이런 교내 체육시설 예약·이용 시스템을 악용한 예다.

총무부는 현행 출입 관리 시스템을 수정해 도용 문제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용 당일엔 시설 이용 허가증을 제출하고, 학생증을 통해 교내 구성원인지만 확인 받으면 입장할 수 있었다. 총무부는 지난 15일, 4분기 체육시설 이용을 신청한 모임 대표자들에게 ‘이용 당일엔 모임의 회원 명부를 실제 이용자와 대조해 일치하지 않는 인원은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전달했다. 총무부 체육시설관리 담당 직원 김남욱 씨는 “모임 회원과 실제 이용자를 대조해 확인하는 게 원칙이었다”며 “그동안 편법을 이용해 발생한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출입 관리 방식이 변경되면, 지금처럼 지인을 동원해 동아리 모임 수를 늘리고 체육시설 이용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교내 야구 중앙동아리 ‘백구회’ 이준수 감독은 “기존에는 체육시설 예약이 동아리 규모보다 인맥에 따라 결정됐다”며 “동아리 구성원뿐만 아니라 모임을 개설하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전했다.



동아리 활동 제한 우려 있어

교내 단체들은 체육시설 이용 당일에 모임의 명단과 실제 이용자를 대조하는 것은 체육 동아리의 특성을 무시한 해결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디어학부 축구동아리 'FC로테마쎄' 양진홍 감독은 “체육 동아리는 개인의 일정에 따라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매번 바뀐다”고 말했다. 백구회 이준수 감독도 “예약 시간에 모임 인원만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총무부는 “동아리마다 모임을 하나씩만 만들면 예약자와 이용자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바뀐 방식에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애기능 축구 중앙동아리 'FC공돌이' 박경진 주장은 총무부의 조치가 이용자의 수요를 배려하지 못한 것이라 비판했다. 그는 “인원이 많고 활동을 열심히 할수록, 모임 개설도 많이 하고 체육시설 수요가 높다”며 “부원이 많은 동아리는 활동 수요에 맞게 예약하려면 여러 개의 모임을 개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총무부는 “한 단체가 여러 개 모임을 개설하면 시설을 독점할 수 있기에 하나로 줄이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준수 감독은 “모임을 만들 때 가입자가 동아리원으로 구성된 사실만 확인되면 사용 당일엔 다른 인원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도용도 막고 동아리 활동도 제한하지

않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체육 동아리들의 신입 부원 모집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데드라인즈 정종완 감독은 “신입 부원은 모임 개설 시기가 지난 후에 들어오는데, 이들은 녹지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는 셈”이라고 밝혔다. 백구회 이준수 감독은 변경된 방식으로 인해 “녹지에서 진행되는 트라이아웃(신입 부원 테스트)이 불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청한 농구동아리 역시 “신입 부원은 임시 회원으로서 활동에 참여한 뒤 가입을 결정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해져 신입 모집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FC공돌이 박경진 주장은 연습경기도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그는 “녹지 예약이 치열해 2시간을 연달아 예약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앞, 뒤 시간대의 다른 동아리와 교류해 2시간을 같이 써 왔다”고 설명했다. 모임끼리 예약 시간을 공유할 수 없으면 교류도 힘들어진다.

같은 체육시설을 쓰는 동아리에 동시에 가입했다면 하나의 활동을 포기해야 한다. 체육시설 당 하나의 모임에만 가입할 수 있기에, 녹지운동장에 모임을 만든 축구동아리와 야구동아리에 모두 가입한 사람은 두 모임 중 가입하지 않은 단체의 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다. 해당 모임 명단에는 본인의 이름이 없기 때문이

다. 총무부는 “종목이 다른 여러 동아리에 가입했다고 해도 소수의 편의를 위해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다”며 “한 종목은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의과대학 야구동아리 '메딕스' 양현석 훈련 총괄은 새로운 예약방식 변경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아리마다 원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동아리연합회가 주관하고 동아리 대표자 간 협의를 통해 이용 시간을 분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용재 동아리연합회장은 “해당 내용을 이번 주안에 동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총무부는 체육단체들의 불만을 일부 수용했다. 동아리 신입부원 모집 기간에는 부원 후보자가 일정 기간 추가로 회원 명단에 등록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시설이용을 확정한 동아리들이 운동장을 공유해 연습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다만, 예약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순 없다는 입장이다. 총무부는 “얼마다 행사, 훈련 일정, 유료 대관 등에 따라 대어 가능 시간이 달라지고, 지금의 시스템은 여러 가지 제약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합리적으로 시간을 배분하기 위해 정착됐다”며 “예약 시스템 변경은 어렵다”고 답했다.

전수현·조경준 기자 press@

제10회 KU 노사정포럼

## 위기의 노동사회, 새로운 방향성을 논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의 노동정책을 상상·활력·안전으로 나눠 제시했다.

본교 노동대학원(원장=박지순 교수)이 주최한 제10회 KU 노사정포럼이 지난 1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행사에는 노동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노동시장 관계자들이 참석해 노동사회의 도약을 위한 과제를 고민했다.

박지순 노동대학원장은 축사를

통해 ‘노동법의 현대화’를 강조했다. 산업의 디지털화, 노동시장의 세대 교체 등 대전환의 시대에서 노동법도 흐름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지순 원장은 “여전히 한국의 노동법과 정책은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틀에 갇혀있다”며 “노동규칙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장관은 “일자리, 인구 구조, 근무 방식이 바뀌며 한국은 새로운 도전 과제를 맞은 상태”라고 분석했다. 그는 성장을 하라, 현장 노사관계 불안, 고용격차 등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함께 지적하며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제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식 장관은 △노사가 상생하는 노동시장 △활력있는 노동시장 △안전한 노동시장을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장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노사 상생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 장관은 “노사의 핵심 변수인 ‘노동 시간’과 ‘임금 체계’에 대한 정책이 우선”이라며 지속가능한 임금 체계를 위해 연공성완화의 필요성을제안했다.

이어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촘촘한 일자리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

은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것과 더불어 국민이 양질의 일자리를 쉽게 찾을수록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안전한 노동시장을 목표로 산업안전과 보건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노력 중이라 밝혔다. 그는 “10월 중으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 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최우선 가치”라며 강연을 끝맺었다.

이번 KU 노사정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됐다. 2015년부터 5년간 노동대학원장을 역임했던 조대엽(문과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포럼을 통해 민주주의 노동에 대한 지혜가 생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글 | 김영은 기자 kimoo@ 사진 | 김태준 기자 orgnmind@